

불의(injustice)대한 대응방식과 민감성의 차이

A difference of coping style and sensitivity to Injustice

김 지 경(Kim, Ji Kyoung)*

ABSTRACT

People pursue justice and want to behave justly'. This motivation is not explained only by the self-interest. Justice is virtue and people strive to justice. This study explain justice oriented behavior and cause of the behavior. When people are confronted with injustice, people differ in coping style and injustice sensitivity. This study focused injustice sensitivity. Especially, empathy with victims is important to altruistic punishment and reward.. I discussed the importance of empathy with victims in justice education.

Key words: justice, injustice, injustice seneitivity, coping style

I. 들어가며

우리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정의(justice)'의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은 성장이 제일의 가치이고 목표였기에 앞만 보고 달려왔었다고 한다면 이제 경제적 성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특히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사회정의의 문제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정의는 인간의 기본적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고대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 사회의 핵심요소라고 얘기한 이후로 많은 철학자들도 지속적으로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사회학자인 마르크스와 뒤르켐, 베버 등은 정의와 불의가 사회적 안정과 변화를 향한 힘의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심리학자들은 정의에 대한 고려가 다양한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경험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었다(Deutsch, 1985). 본고에서는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의가 위배되는 상황 즉 불의

*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injustice)를 목격하거나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불의에 대응하는지 또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며 자신의 신념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불의에 대한 민감도를 연구한 심리학적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불의에 대한 태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정의의 개념과 유형

정의는 플라톤을 비롯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칸트 등의 많은 사상가들에게 주요한 관심사였다. ‘정의’에 해당하는 영어의 ‘justice’는 그 어원상 ‘justus’에서 기원했는데 이는 ‘적법한’, ‘정당한’, ‘공정한’ ‘평등한’ ‘공평한’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정의는 개인만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사회전체를 위한 정의와 관련된다. 사회정의는 다수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이해를 포함하며, 모든 형태의 사회와 역사에 적용할 수 있고 적합한 단하나의 정의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환경적/생태적 정의(environmental/ecological justice)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와 관련되며 ‘사회에서 혜택과 부담의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분배적 정의는 한정된 자원을 공정성(equity), 필요성(need), 평등성(equality)의 원리에 기초하여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다(Tyler & Smith, 1998). 둘째, 정치적 정의는 ‘정치적 권리의 평등과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이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 정의란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말한다. 셋째, 절차적 정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한 집단에 얼마나 많은 투입이 가해졌는가와 관련되는 개념이며 의사결정 과정동안에 이루어지는 영향력에 초점을 두는 정의이다 (Tyler & Smith, 1998). 넷째, 환경적, 생태적 정의는 인간과 자연세계간의 관계 즉 주어지는 환경의 분배와 사람과 지구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깨끗한 물과 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욕구와 관련된다. 환경적 생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혜택과 부담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섯째 응보적 정의는 ‘관계되거나 저질러진 행위에 상응하는 것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Capeheart & Milovanovic, 2007).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범죄는 법위반이 유죄로 정의되는 국가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므로 범죄가해자와 국가의 경쟁을 통해 비난을 결정하고 고통을 부과하게 된다. 회복적 정의

는 특정한 범죄에 이해를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관여시켜서 함께 피해와 요구사항 책임을 확인하고 다루는 절차로서 치유와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에 주목해서 정의를 바라보고 이러한 정의가 국가나 사법체계가 아닌 개인의 미시적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정의를 추구하며 정의에 따라 행동하려는 인간

오래전부터 정의가 사람들의 관심문제였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인간의 내면 깊숙이에는 정의에 대한 관심과 추구가 있어왔다. 자신도 정의의 원리에 합당하게 대우받고자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근거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관을 상정하고 있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 행동경제학의 등장으로 그 근본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관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얻게 될 이득을 최대화하는데 관심을 가질 뿐 타인과 무언가를 배분할 때 정당성의 관점에서 배분을 하거나 자신이 제 3자가 되어 분배과정을 지켜보는 경우 그 과정이 정의롭게 진행되는가에 관한 관심이나 개입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고전경제학의 명제인 ‘경제적 인간’에 대한 회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경제적 인간이라는 말에서 함축하고 있는 경제적 합리성이란 개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호가 명확하며 거기에는 모순이 없고 항상 불변해야하고 그 기호를 토대로 자신의 효용이 가장 커지도록 선택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도미노 노리오, 2006). 경제적 인간의 합리성은 효용의 극대화와 연결된다. 효용이란 개인들의 기호에 바탕을 둔 일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모든 선택대안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알고 각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을 재빨리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인간의 조건에는 합리성외에도 ‘이기성’이 더해진다. 경제적 인간의 조건인 이기성은 타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을 최대화하려는 성질을 말한다. 경제적 인간의 두 번째 가정인 이기적 인간에 대한 가정도 여러 상황들을 통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주로 분배상황을 이용한 게임에서 사람들이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이라는 가치도 고려함을 알 수 있다.

최수의 딜레마 게임은 두 명이 짝을 이루어 실시하는데 둘 다 협조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최적이나 개인적으로는 상대를 배신하는 전략이 우월전략이 된다. 그러나

실재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딜레마는 그 구조가 훨씬 복잡다단하다. 따라서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게임 상황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상황을 게임으로 만든 것이 공공재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1회로 끝나는 공공재 게임을 시행한 여러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30-60%를 공공계좌에 기여했다(Fischbacher et al., 2001; Marwell & Ames, 1981). 경제학적 예측에 의하면 공공계좌에의 기여율이 0%인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1.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

최후통첩게임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두 사람(A와 B)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낯선 존재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체면을 차리거나 상대를 배려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두 사람 중 제비를 뽑아 A는 십만원의 돈을 어떻게 나눌지 제안자의 역할을 맡게 되고 B는 그 제안에 대해 '좋다' '싫다'의 의견표시만 할 수 있다. 만약 '좋다'라고 응답하면 제안자가 제안한 액수대로 돈을 나눠 갖게 된다. 그러나 만일 '싫다'라고 하게 되면 두 사람 다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게임은 이런 과정을 단 한차례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먼저 제안자의 결정에 대해 추론을 해보면, 이기적인 인간의 특성대로라면 자신이 돈을 전부 갖고 상대방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상대방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두 사람 다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자는 자신의 이기심을 억누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배분의 적정 수준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을 최소한의 액수와 자신이 받을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액수를 제안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최소한 얼마만큼의 돈이 돌아가게 제안을 해야 그가 거부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만일 완벽하게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아주 적은 금액의 돈이라도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1원을 제안해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두 사람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면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금액은 1원이 되고 자신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99999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기성과 합리성을 가정할 때 성립할 수 있는 이론적 추측일 뿐 현실에서는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행동경제학자들이 여러 차례 실험을 실시한 결과(Camerer & Thaler, 1995; Guth, Schmittberger & Schwarze, 1982; Thaler, 1988), 제안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전부를 차지하겠다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오히려 40%이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반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나눠야 할 금액의 크기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Hoffman, McCabe and Smith, 1996; Cameron, 1999; Slonim and Roth, 1997; Fehr, Fischbacher and Tougareva, 2002; Fehr and Tougareva, 1996). 더구나 이러한 결과는 문

화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관찰되었다(Roth, Prasnikar, Zamir, and Okuno- Fujiwara, 1991; Heinrich et al., 2001, 2006). 이 최후통첩 게임에서 제안자는 사실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꽤 많은 몫을 배분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가정에 반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또 하나 최후통첩게임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B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반응이다. 그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받은 제의를 수용해야한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를 보면(Camerer & Thaler, 1995; Hofmann, McCabe & Smith, 1996) 대체로 20%보다 적은 액수를 제안 받게 되면 제안을 거부하였다. 자기가 받은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낄 때 그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포기하고서라도 상대방이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 못지않게 공정성(fairness)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개인의 경제적 이득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간은 때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버리고서라도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취하기도 한다.

2. 공공재 게임(public good game)

공공재의 경우는 배제불가능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무임승차(free-rider)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면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굳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공공재 게임은 무임승차가 가능한 상황이면 사람들이 어김없이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지를 보기위해 고안된 실험이다.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가정이 맞다면 사람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좇아 무임승차를 택할 것이다. 이 실험의 대표적 사례로 Marwell 과 Ames(1981), Fehr와 Gächter(2000)등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전형적이다. 우선 일정한 수의 피험자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 다음 각 사람에게 일정한 수의 토큰(token)을 배분한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배분된 토큰을 개인계정(individual exchange)과 공공계정(group exchange)에 나누어 투입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명으로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 각 사람에게 50개의 토큰을 주었을 때 A라는 사람이 토큰 하나를 개인계정에 투입하면 그 사람은 실험이 끝난 후 1달러를 받는다. 반면 토큰 하나를 공공계정에 투입하면 그 집단에 속해있는 사람들 모두 50센트씩을 받게 된다. 공공계정에 투입된 토큰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공공계정에 넣은 한 개의 토큰은 개인에게는 50센트의 수익을 주지만 공공의 수익은 5달러가 된다. 물론 개인계정에 넣은 토큰 하나로 본인이 얻는 개인적 수익은 1달러이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배정된 토큰 50개를 전부 공공계정에 넣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계정에 투입한 토큰 한 개의 개인적 수익이 공공계정에 투입한 토큰 한 개의 개인적 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전략은 공공계정에 한 개의 토큰도 넣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어느 누구도 공동계정에 토큰을 넣지 않는 무임승차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공공재 게임을 이용한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최정규, 2008). 사람들은 공공재 게임의 상황에서 기부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0-60%에 가까운 금액을 공공계정에 기부한다. 공공재 게임을 같은 집단 내에서 미리 정한 횡수로 반복 시행하는 경우 횡수를 거듭함에 따라 기부액은 점차 감소해 게임이 종결하는 시점이 되면 기부액은 0에 수렴한다. 공공재 게임에서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허락하면 공공재에의 기여율이 상승한다(Ostrom, Walker, and Gardner, 1992; Orbell, Dawes, and van de Kragt, 1988).

공공재 게임과 비슷한 성격의 또 다른 게임의 예로서 신뢰게임(trust game)을 들 수 있다. 이 게임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돈을 자신이 전부 갖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투자하였다. 이는 상대방도 역시 자신의 돈 일부를 투자를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형태의 게임을 활용한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얻는 물질적 이득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fairness)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며 상대방의 신뢰에 대해 보답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IV. 정의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의 이론들은 세 가지 입장에서 이를 정리하고 있다.

1. 도구적 접근

Lind와 Tyler(1988)는 사람들이 정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공정성 확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이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접근의 대표적 이론인 ‘자기-이익모델’에서는 사람들이 공정한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해 통제권을 갖기를 희망하고 예상가능하며 통제가능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추구한다고 보는 것이다.

2. 관계적 접근

Lind와 Tyler(1988)는 관계적 모델 혹은 집단가치모델이라고 불리는 모델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내에서 정의가 개인의 가치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공정성을 중시 여긴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공정하게 조직원들을 대하면 자신이 그룹 내에서 가치 있고 인정받는 존재라 느끼며 집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므로 공정성에 의미부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은 구성원들은 자신과 자신의 속한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으며 집단의 발전에 기여하는 적극적 행동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 집단이 발전하게 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도구적 접근과 관계적 접근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의무론적 접근모델은 인간의 자기이익적 동기 외에도 정의를 향한 동기가 작동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3. 의무론적 접근

Folger(1998, 2001)는 의무론적 모델에서 사람들이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정의로운 것이 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정의로움이나 공정함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도덕적 가치로 해석되며 불공정이나 불의함은 이러한 가치를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덕적 규범에 위배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이에 대해 반응하려는 동기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대부분 의무론적 모델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들은 자원을 할당하는 의사결정 패러다임을 사용하였다(Kahneman et al., 1986).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 다른 사람들이 불공정한 행동을 하면 본인의 자원을 희생해서라도 처벌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보였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의의 피해자가 아니어도 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관찰자 입장에서, 불의의 피해자가 자신의 선택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불공정한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려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Rupp(2002)는 ‘의무론적 효과’라고 불렀다.

V. 불의(injustice)에 대한 대응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을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불의를 목도하면 강한 부정적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불의에 둔감하다. 정의는 그들에게 자주 언급되는 이슈가 아니며 불의한 상황이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인지적으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의에 대한 민감도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된 성격변인으로, 사람들이 불의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언제 반응할지를 결정해주는 변수가 된다(Mohiyeddini & Schmitt, 1997; Schmitt, 1996; Schmitt et al., 2009).

1. 불의를 경험하는 입장과 민감도

사람들은 불의와 관련된 상황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수혜자가 될 수도 있으며 불의를 관찰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Mikula, 1994).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관점에서 불의에 민감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의 정의에 대한 민감도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정의와 관련된 특성과 태도,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내재적이며 궁극적인 정의가 존재한다는 믿음 등이 서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Schmitt et al., 2005). 다른 한편으로는 세 개의 관점들은 다른 성격 특성이나 행동결과들과는 또 다른 관계의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관찰자 입장의 민감성과 수혜자 입장에서의 민감성은 친사회적 성향과 공감능력, 사회적 책임감, 겸손함이나 쾌활함 등과 정적상관이 있는 반면 피해자로서의 민감성은 자기와 관련된 관심 이룰테면 시기심 신경증 복수심 편집증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Schmitt et al., 2005). 더 나아가 실험연구들에서도 관찰자와 수혜자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약자들과의 연대나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동등한 분배를 하는 것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자 입장의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일탈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etchenhauer & Huang, 2004; Gollwitzer, Schmitt, Schalke, Maes, & Baer, 2005).

우리 인간에게 정의를 향한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간을 가장 이기적 존재로 보고 있는 경제학에서도 틀린 것임이 확인되었다. 때로는 나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서라도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큰 흐름에서 정의를 지향한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현실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훨씬 더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그렇다면 불의를 경험하거나 불의가 일어

나는 상황을 목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불의를 경험하고 관찰하게 된다. 부와 권력,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 등에서 우리는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 정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고 정의를 회복하려 노력하게 된다(Montada, Schmitt, & Dalbert, 1986). 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경멸감이나 무시를 나타내기도 한다(Lerner & Miller, 1978). 혹은 현존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신념체계를 갖추기도 한다(Jost, Banaji, & Nosek, 2004).

2. 정의로운 세상 가설과 정의회복

사람들은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고 싶어 한다. 정의로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받을 몫을 정당하게 받는다. 이러한 신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다고 생각하게 하며 따라서 중요한 적응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신념이 불의에 의해 위협 받게 되면(자신이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관찰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게 된다. 만일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실제로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일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사람들은 상황을 재평가함으로써 인지적으로 세상이 정의롭다는 신념을 지켜내려 한다. Lerner와 Simmons(1966)의 고전적인 연구에서 젊은 여성이 학습장면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받는 것을 보게 하였다. 이런 방식의 실험이 계속될 거라고 믿게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여자를 경멸하는 반응을 보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 맞는 답을 하면 돈으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알려주자 그러한 경멸의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 이러한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신념은 부적응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Rubin과 Peplau(1973,1975)의 연구이후 중요한 적응적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것에 관심이 많다. 즉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신념이 강할수록 정의에 대한 동기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타인에 대한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구분해야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정의로운 신념을 지지하였으며 이것은 여러 적응적인 결과물들(주관적인 행복)을 잘 예측해주는 지표였다. 정의로운 세상을 믿는 것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수들로는 종교적 독실함(Dalbert & Katona Sally, 1996), 권위주의(Furnham & Procter, 1980), 내적 통제소재(Furnham & Procter, 1980)등이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적인 특성이 강하고 권위주의 성향이 높으며 내적통제력을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불의를 경험하면 자신을 비난하여 자신이 경험한 불의를 정당화하거나

(Bulman & Wortman, 1977) 자신이 받은 불공정함을 과소평가시키거나(Lipkas & Siegler, 1993), 자기에게 집중되었던 반추를 피하거나(Dalbert, 1997), 용서하기도 한다(Sterlan, 2007).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세상이 정의롭다는 신념이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다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직하며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고 타인에게 역시 신뢰받는 행동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산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또 정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내재적 동기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의한 상황을 정의로운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 이러한 신념은 부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불의나 불공정을 용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역기능도 한다.

3. 이타적 처벌과 이타적 보상의 기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행동경제학의 실험 패러다임을 통해 밝혀진 것은 사람들이 분배를 할 때도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상대방과 공평하게 나누려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어느 일방이 독점을 하거나 공공계정에 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여러 방식으로 응징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응징에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좌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행동방식 역시 불의를 정의로 회복시키는 행동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몫을 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이타적 보상과 자신의 몫을 희생하여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이타적 처벌은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일까? Marijke등의(2008)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공정한 배분에 대해 기꺼이 자신의 몫을 희생하여 처벌과 보상을 하였다. 공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높은 공감적 관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처벌보다는 보상을 선택하였으며 낮은 공감적 관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보다는 처벌을 선택하였다. 이타적 보상은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처벌은 수혜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다.

타인을 향한 정의에 대한 관심은 이타적 처벌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이다. 더욱이 도덕 감정은 이러한 동기에 힘을 불어넣으며 정의에 대한 민감성과 이타적 처벌 간에 매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분배에 대해 강한 도덕적 분노를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몫을 희생해서라도 처벌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혜자나 관찰자의 관점과 공감할 때 나타나며 피해자나 관찰자 관점과 공감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Fetchenhauer & Huang, 2004). 처벌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전의 관점은 그들이 이기적 이어서 물질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해왔지만 연구결과는 좀 더 복잡했다. 처벌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보면, 수혜자 관점의 정의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피해자

를 보상해주고자 했고 처벌을 하는 것에는 도덕적으로 주저하였다. 개입하지 않으면 죄책감도 느꼈다. 그러나 피해자관점의 정의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주로 자기중심적인 자기이익과 손해의 관점이었다.

Ⅵ. 나가며

정의에 대한 관심과 지향은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존재임과 동시에 정의의 관점에서 그러한 이익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거나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존재인 것이다. 불의를 경험하거나 목도하면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존재인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지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며 불공정성이나 불의를 어떻게 정의로운 상태로 바꿀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심리학에서 연구된 결과들을 토대로 생각해볼 때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기초적인 관심외에 좀 더 구체화되고 실천적인 관심을 갖고 정의를 향해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불의의 피해자적 관점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공정한 상황에서 수혜자가 되는 사람 역시 그 부당함을 인식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한다는 것이 연구결과 밝혀졌으며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의를 목도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불공정성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였다.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더 공감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나타났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풍요속에 성장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러한 청소년들일수록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 및 불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그들이 비도덕적어서가 아니라 약자들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특히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하는 불의에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 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함몰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에서도 정의가 구현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적 행위자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있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과 불의에 대한 저항은 교육을 통해 더 강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우리사회는 정의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도미노 노리오. (2006). 행동경제학. 지형: 2007.
- 이준구. (2008). 행태경제학의 등장과 경제학의 미래.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p.1-82.
- 최정규. (2009). 게임이론과 진화 다이내믹스. 서울 이음: p.433-435.
- Bègue, L., & Muller, D. (2006). Belief in a just world as moderator of hostile attributional bia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 117-126.
- Bowles, S, Choi, J, K, & Hopfensitz, A.(2003). The coevolution of individual behaviors and social institutions.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33(2), 135-147.
- Bulman, R. J., & Wortman, C. B. (1977). Attributions of blame and coping in the "real world": Severe accident victims react to their lo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51-363.
- Camerer. (2003). Behavioral Game The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merer(2004). "Prospect Theory in the Wild: Evidence from the Field," in C. Camerer *et al.*(eds.).
- Camerer, C., and R. Thaler(1995). "Anomalies: Dictators, Ultimatums, and Manner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 209-219.
- Cameron, L. A.(1999). "Raising the Stakes in the Ultimatum Game: Experimental Evidence from Indonesia", *Economic Inquiry* , Vol. 37, No 1, pp.47-59.
- Carpenter, J. (2006). Punishing free-riders: how group size affects mutual monitoring and the provision public goods. *Games and Economics Behavior*, 60, 31-51.
- Cooper, A.C., C.Y..Woo, & W.C.Dunkelberg(1988). Entrepreneurs Perceived Chances for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2), 97-108.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 79-98.
- Dalbert, C., & Katona-Sallay, H. (1996). The "belief in a just world" construct in Hungar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 293-314.
- Dalbert, C., Montada, L., & Schmitt, M. (1987). Glaube an eine gerechte Welt als Motiv: Validierungskorrelate zweier Skalen [The belief in a just world as a motive: Validity correlates of two scales]. *Psychologische Beiträge*, 29, 596-615.
- Fehr & Gächter(2000). "Cooperation and Punishment in Public Goods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90, 980-994.
- Fehr & Gächter(2000). "Fairness and Retaliation: The Economics of Reciproc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 159-181.
- Fehr and Tougareva(1996). "Do High Monetary stakes Remove Reciprocal Fairness? Experimental Evidence from Russia", Institute for Empirical Research in Economic Working Paper.
- Fehr, Fischbacher and Tougareva(2002). "Do High Stakes and Competition Undermine Fairness?"

- Evidence from Russia”, Institute for Empirical Research in Economics Working paper #120.
- Fehr, E., and S. Gächter(2000). “Cooperation and Punishment in Public Goods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90, 980-994.
- Fehr & Schmidt(1999). “A Theory of Fairnes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 817-868.
- Fischbacher, U, Gächter, S, & Fehr, E.(2001). Are people conditionally cooperative? evidence from a public goods experiment. *Economic Letters*, 71(3), 397-404.
- Furnham, A., & Procter, E. (1989). Belief in a just world: Review and critique of the individual difference literatur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365-384.
- Guth, W., R. Schmittberger, and B. Schwarze(1982). “An Experimental Analysis of Ultimatum Bargaining,”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3, 367-388.
- Heinrich J (2001) “Cooperation, Reciprocity and Punishment in Fifteen Small-scale Societies,” *American Economic Review*, 91, 73-78.
- Heinrich J (2006). “Costly Punishment Across Human Societies”, *Science*, Vol. 312, pp.1767-1770
- Hoffman, E., K. McCabe, and V. Smith(1996a): “Social Distance and Other Regarding Behavior in dictator Games,” *American Economic Review*, 86, 653-660.
- Jost, J.T., Banaji, M.R., & Nosek, B. A.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 881-919.
- Kahneman, D., J. Knetsch, and R. Thaler (1991). “The Endowment Effect, Loss Aversion, and Status Quo Bia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5, 193-206.
- Kahneman, D.,& A. Tversky(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Kahneman, D., J.I. Knetsch, & Richard H. Thaler(1990). Experimental Tests of the Endowment Effect and the Coase Theore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1325-48.
- Kahneman, D., J.I. Knetsch, & Richard H. Thaler(1991). Anomalies: Utility Maximization and Experienced Ut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5, 193-206.
- Kreps, D., Milgrom, P., Roberts, J. and Wilson, R., 1982, “Rational Cooperation in the Finitely Repeated Prisoner’s Dilemma”,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27. pp.242-252.
- Lerner, M. J. (1977). The justice motive: Some hypotheses as to its origins and forms. *Journal of Personality*, 45, 1-52.
- Lerner, M. J., & Miller, D. T. (1978). Just world research and the attribution process: Looking back and ahead. *Psychological Bulletin*, 85, 1030-1051.
- Lerner, M. J., & Simmons, C. H. (1966). The observer’s reaction to the “innocent victim”: Compassion or rej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203-210.
- Lipkus, I. (1991). The construction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glob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and the exploratory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171-1178.

- Lipkus, I. M., & Siegler, I. C. (1993). The belief in a just world and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Journal of Psychology*, 127, 465-474.
- Lipkus, I. M., Dalbert, C., & Siegler, I. C. (1996).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the belief in a just world for self versus for others: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666-677.
- Marwell & Ames (1981). "Economists Free Ride, Does Anyone Else?: Experiments o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5, 295-310.
- Messick, D. M., Bloom, S., Boldizar, J. P., & Samuelson, C. D. (1985). Why are we fairer than oth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 480-500.
- Montada, L., Schmitt, M., & Dalbert, C. (1986). Thinking about justice and dealing with one's own privileges: A study of existential guilt. In H. W. Bierhoff, R. L. Cohen, & J. Greenberg (Eds.), *Justice in social relations* (pp. 125-143). New York: Plenum Press.
- Olson, C(1965). Handwritten character recognition using Hopfield neural network, *Progress in Biomedical Optics and Imaging(SPIE Proceedings Series)*, Vol.- No.1965 [1993]
- Orbell, Dawes, and van de Krag(1988). "Explaining Discussion Induced Cooperation", *Journal of Personalty and social Psychology*, 54, No. 5 , pp.811-819.
- Rabin, M.(1993). "Incorporating Fairness into Game Theory and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83, 1281-1302.
- Roth, A., V. Prasnikar, M. Okuno-Fujiwara and S. Zamir(1991) "Bargaining and Market Behavior in Jerusalem, Ljubljana, Pittsburgh and Tokyo: An Experimental Study," *American Economic Review*, 81, 1068-1095
- Rubin, Z., & Peplau, L. A. (1973). Belief in a just world and reaction to another's lot: A study of participants in the national draft lottery. *Journal of Social Issues*, 29(4), 73-93.
- Simon, H.(1955) "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9, 99-118.
- Slovic, Paul, Howard Kunreuther & Gilbert F. White(2000). Decision processes, rationality, and adjustment to natural hazards. in *The perception of Risk*, ed Paul Slovic, 1-31. London: Earthscan.
- Strack, Fritz,I., L, Martin & Norbert Schwartz(1988). Priming and Communicati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Information Use in Judgements of life Satisfac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429-42.
- Thaler, R.(1988). "Anomalies: The Ultimate Gam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 195-207.
- Tversky, A., and D. Kahneman(1974)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 1124-1131.

투고일자 : 2015. 11. 30

수정일자 : 2015. 12. 29

게재일자 : 2015. 12. 31

<국문초록>

불의(injustice)대한 대응방식과 민감성의 차이

김 지 경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하며 정의롭게 행동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기는 자기 이익 추구적 행동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의로움이 도덕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대한 추구하고 정의지향행동을 살펴보고 그러한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고 불공정이나 불의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의 여러 유형과 차이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심리학적 변인들을 고찰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불의에 대한 민감성과 관계있는 변수로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변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위해 정의에 대한 이론적 교육보다 불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정의, 불의, 불의에 대한 민감성, 대응유형